

# 이차전지업계, 한국형 소재산업 생태계 일군다

에코프로 등 설비 투자 확대  
양극재 신규공장 건립 추진  
포항시 핵심 산업단지 전망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전경

/에코프로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포항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차전지 소재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의 중심지로 포항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포스코 아래 '철강의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던 포항시가 이차전지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서며 경제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이차전지 관련 업계는 포항에 기반을 두고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는 기업은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 단지에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 등과 함께 배터리 양극재 신규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코프로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69만4000㎡(약 21만평)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원료,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양극재 밸류체인 허브인 '블루밸리 캠퍼스(가칭)'를 구축한다. 올 4분기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첫 가동이 목표다.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는 "블루밸리 캠퍼스 추가 조성을 통해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탑 티어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 열심히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 지역 주민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에코프로가 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또한 포항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양극재용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에 매진 중이다. 지난 5월 포스코퓨처엠은 화유코

발트, 경상북도,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극재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약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양극재의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공장은 2027년까지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내 267,702㎡(약 8만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원료 조달에 강점이 있는 화유코발트와의 니켈·전구체 투자로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연산 10만 6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기지과 연계한 니켈-전구체-양극재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보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가정용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LG전자

## LG전자 가정용 환기 시스템 선배

LG전자가 8일 가정용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구독상품을 출시했다.

가정용 환기 시스템은 창문을 열지 않고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이산화탄소(CO2) 등으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고 필터를 거친 깨끗한 외부 공기를 집 안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다.

LG전자가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구독상품은 전문가가 6개월마다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제품의 작동 환경을 점검하고, ▲내부 클리닝 ▲전열교환소자 클리닝 ▲UV살균 ▲피톤치드 탈취 ▲필터 교체 등 내·외부를 꼼꼼하게 관리해 준다. /김서현 기자 seoh@

## 한국타이어 'e 밴트라' 시리즈 출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전기 경트럭 및 밴 전용타이어 신제품 'e 밴트라' 시리즈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8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e 밴트라' 시리즈는 전기차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고 오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전기차 장착 시 기존 자사 제품 대비 30% 향상된 마일리지 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 젖은 노면에서는 13%, 마른 노면에서는 4%의 핸들링 성능이 향상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울포지션용 제품 'e 밴트라 트랜짓'은 전륜 및 전후륜으로 장착 가능하다. 3D 미세홈을 적용해 주행 시 생기는 블록 강성 증대 및 변형을 최소화했다. 드라이브 포지션용 제품 'e 밴트라 드라이브'는 블록형 패턴 디자인과 엇갈린 그루브, 넓은 횡방향 커퍼 적용으로 최적의 강성 밸런스를 구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 영상 제공



# 삼성 "갤럭시 신제품 사전구매 알림 신청 10만명 돌파"

'사전구매 알림신청' 이벤트·설문  
AI기능 등 새로운 폴더블폰 기대



삼성닷컴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웹페이지

/삼성전자

오는 10일 예정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을 앞두고 폴더블폰 신작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알림 신청이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동일 기간 기준 국내 출시된 폴더블 사전 구매 알림신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전구매 알림신청'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답한 고객이 93%로 갤럭시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6%가 가장 관심 있는 제품으로 폴딩-폴딩형 스마트폰을 선택했다. 이어 바 타입 스마트폰 16%, 워치 13%, 버즈 10%, 태블릿

7%, 스마트링 6%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새로운 폴더블폰에서 가장 기대되는 AI 기능은 번역과 카메라 기능이 25%로 가장 높았고, 사진 편집 15%, 검색 1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여행&경험과

기술이 각각 20%, 18%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에서 통번역, 카메라 등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해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10일 오후 10시(한국시간)에 개최하는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 AI가 탑재된 새로운 폴더블폰 신작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전 구매 알림신청 이벤트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오는 10일 삼성전자의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완성한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의 새로운 갤럭시 신제품들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효성중, 3300억 규모 변압기 사업 수주

스타트넷에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

효성중공업이 노르웨이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연이어 수주하며 유럽 전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노르웨이 국영 송전청 Statnett(스타트넷)에 총 3300억원 규모의 420kV(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3040억원 규모의 물량을 지난 5일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물량은 노르웨이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 및 노후화된 설비 교체를 위한 것으로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의 전력 시장은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경쟁사들이 집중돼 기술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효성중공업은 설계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주한 물량은 효성중공업이 지난 2020년 처음 노르웨이 시장에 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2023년에도 1300억원 규모 420kV 초고압변압기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으며 현재 노르웨이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유럽 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유럽을 기반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 두산에너지빌리티, 제철소 소결공정 AI 적용

RIST 데이터분석 용역 계약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외 발전분야에서 축적한 디지털 사업 역량을 철강 산업 분야로 확장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철강 및 환경에너지 기술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하 RIST)과 '소결공정 AI 적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RIST는 포스코가 전액 출연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포스코 그룹의 핵심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RIST와 포스코 제철소 내 소결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운전 적용성을 오는 12월까지 분석할 예정이다. 소결(si

ntering)은 고체 가루에 열과 압력을 가해 입자를 결합시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송용진 전략혁신부문장은 "이번 계약으로 국내외 발전소에서 검증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디지털 기술력과 RIST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합쳐져 향후 소결 설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생산되는 소결광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2013년부터 데이터분석팀, 디지털솔루션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이노베이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최적화 솔루션을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등 산업 첨단화에 기여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 KBI동국실업 멕시코 공장 증설 완료

KBI그룹 자동차 부품 계열사 KBI동국실업이 북미 고객사 공장 생산 확대에 발맞춰 멕시코 공장 증설을 완료했다.

KBI동국실업은 멕시코 공장을 매출 1000억원 규모의 생산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증축을 지난달 26일 완공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장 증설에 착공한 KBI동국실업의 멕시코 공장은 1년동안 400억원을 투자해 1만 4720㎡ 증축을 완료하고 사출 성형기 및 IMG 성형기를 도입해 라인의 자동화와 현대화 구축으로 생산의 효율화를 극대화했다.

KBI동국실업은 멕시코 공장 증설로 올해 예상 매출 420억원에서 내년엔 55% 증가한 65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